도시재생 문화가 해법이다

해외편 〈17〉 북쪽의 천사 外

게이츠헤드=박진현 문화선임기자

영화 ‘빌리 엘리어트’(Billy Eillot)는 탄광촌 출신 소년 빌리가 역경을 딛고 유명 발레리노로 성장하는 이야기다. 작품의 무대는 영국 뉴캐슬과 이웃인 게이츠헤드. 런던의 패딩역에서 기차를 타고 북쪽으로 3시간 30분 정도 달리면 도착하는 인구 20만 명의 작은 도시다. 게이츠헤드에 진입하면 맨 먼저 두 팔을 벌린 거대한 철제조각상이 시야에 들어온다. 팀밸리(Team Valley)의 에이톤 로지(Eighton Lodge) 언덕에 자리한 ‘북쪽의 천사’(Angel of the North)다. 높이 20m, 가로 52m, 무게 208톤에 이르는 이 작품은 영국의 조각가 안토니 곰리(Anthony Gormley·63)가 만든 공공미술작품이다. 폐광 위의 땅을 딛고 우뚝 서 있는 ’북쪽의 천사’는 탄광촌 게이츠헤드의 암울한 과거, 그리고 문화도시를 향한 지역민들의 열정을 담고 있다. ‘북쪽의 천사’를 보기 위해 영국 전역은 물론 전 세계에서 한해 평균 15만 명이 다녀가고 하루 평균 게이츠헤드의 A1 고속도로를 달리는 운전자들이 9만 여명이나 된다. 런던에서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로 가려면 게이츠 헤드를 경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누적 방문객이 5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

게이츠헤드를 가난한 탄광촌에서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변신시킨 주인공은 지난 1998년 모습을 드러낸 ‘북쪽의 천사’(Angel of the North)다. 높이 20m, 가로 52m, 무게 208톤인 이 천사상은 영국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았다. 〈사진제공=NGI〉

건물 몇 개 짓는다고 재생인가 지역민 끌어 안아야 재생이다

폐광촌 게이츠헤드·뉴캐슬, 초대형 문화도시 상징물 추진
“제작비 막대” 시민 80% 반대…외자 유치 등 끈질긴 설득
발틱현대미술관·세이즈 음악당 등 시너지…글로벌 명소로

뉴캐슬과 게이츠헤드를 연결하는 보행자 전용다리인 밀레니엄 브리지.

1982년 문을 닫은 밀가루 제분공장을 리모델링한 발틱현대미술관.

‘북쪽의 천사’가 게이츠헤드에 날개를 펴기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풍경이다. 거대한 스케일의 조형물이 탄생하기까지 게이츠헤드는 지역사회가 찬반양론으로 갈리는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 1970년대 마거릿 대처 정부의 광산 폐쇄 정책으로 지역 경제의 주축이던 석탄, 철강산업이 무너지면서 실업률이 23%까지 치솟는 암울한 도시로 전락했다. 타인(Tyne)강 건너 뉴캐슬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오랜 세월 라이벌 관계였던 두 도시는 1990년대 초 ‘뭉쳐야 산다’는 데 뜻을 모으고 문화로 도시를 살리는 ‘게이츠헤드 재건’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여기에는 1990년 300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모은 국제 가든 페스티벌(Gateshead National Garden Festival)의 성공이 계기가 됐다.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미술품’에 탄성을 자아내는 관광객들을 통해 공공미술의 ‘상품성’을 확인한 것이다.

게이츠헤드는 1992년 문화에서 도시의 미래를 찾기로 하고 변화를 알릴 상징물을 건립하기 위한 공모에 들어갔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된 조각가 안토니 곰리(당시 43세)에게 제작비 80만 파운드(약 16억원)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맡겼다. 곰리는 철강산업의 중심지였던 과거를 기억하는 의미에서 철강을 작품의 소재로 선택하고 게이츠헤드를 구원하는 뜻에서 자신의 몸을 확대한 천사상을 제안했다.

하지만 소도시로서는 감당하기 벅찬 제작비는 지역사회를 들끓게 만들었다. ‘막대한 세금낭비’라는 주장 이외에 거대한 조형물이 TV 수신과 비행기 운항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시민 80%가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게이츠헤드시는 밀어붙이기 대신 소통을 선택했다. 게이츠헤드 예술위원회장인 고리(Gowrie)경은 “20세기 공공미술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아이콘”이라며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알렸다. 특히 세금이 아니라 외부자본을 유치하겠다고 여론을 달랬고 예산 집행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했다. 프로젝트를 맡은 작가 곰리 역시 예술가·미술교사를 찾아다니며 자신의 작품의도와 의미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무엇보다 뉴캐슬과 게이츠 헤드의 지방의원과 활동가들로 구성된 ‘뉴캐슬게이츠헤드 이니셔티브(NewcastleGateshead Initiatve·NGI)는 ‘북쪽의 천사’ 프로젝트를 성사시킨 일등공신이었다. 공청회와 포럼, TV토론회 등을 통해 ‘북쪽의 천사’가 게이츠헤드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 등을 심어주었다. 제작비는 예술위원회 복권기금 58만4000파운드, 유럽지역개발기금 15만 파운드, 북지역 예술(Northern Arts) 4만5000 파운드, 지역기업 후원 등으로 충당했다.

이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북쪽의 천사’는 착공 5년 만인 1998년 그 웅장한 자태를 드러냈다. 유례를 찾아 보기 힘든 거대한 조형물은 단숨에 국내외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자신감을 얻은 게이츠헤드는 타인강변 인근에 밀레니엄 브리지, 발틱현대미술관, 세이지 음악당을 건립하는 ‘드림 프로젝트’를 추켜들었다. 당시 영국 정부는 새천년(밀레니엄)을 기념하기 위해 밀레니엄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별 공모사업을 진행했는데, 여기에 게이츠헤드가 신청한 것. 이 공모 사업에 당선된 작품 중 하나가 밀레니엄 브리지다. 총 2200만 파운드(약 440억)의 건설 비용은 밀레니엄 위원회와 유럽지역개발펀드에서 조달했다. 그 중에서도 지난 2002년 개관한 발틱현대미술관은 이 프로젝트의 핵심시설. 1982년 문을 닫은 뒤 철거 비용이 없어 방치돼 있던 옛 밀가루 제분소를 리모델링했다. 개관 이후 12년 동안 49개국 예술가 306명의 작품을 선보이며 매년 40만 명의 관람객을 모으고 있다.

영국의 대표적인 건축가 노먼 포스터가 설계한 세이지 음악당은 애벌레 형상의 독특한 외관으로 유명하다. 콘서트홀 등 세 개의 홀을 우산처럼 감싸고 있는 3000개의 스테인리스 스틸 패널이 반짝반짝 빛을 낸다. 게이츠헤드시가 7000만 파운드(약 1300억원)를 투입해 2004년 건립한 이래 한해 70만명의 방문객이 찾는 이곳에는 영국 명문악단 노던 심포니아가 상주하고 있다.

두 건물 사이에는 뉴캐슬과 게이츠헤드를 연결하는 보행자 전용 다리인 게이츠헤드 밀레니엄 브리지가 있어 자연스럽게 뉴캐슬 방문객들까지 끌어들인다. 역사문화유산이 풍부한 뉴캐슬과 게이츠헤드를 연결해 하나의 클러스터처럼 보이게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독특한 디자인과 배가 지날때 윙크하듯 다리가 접히는 모습에서 ‘윙크하는 눈’(Winking Eye Bridge)이라는 별명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앤드류 딕슨

발틱현대미술관과 세이지 음악당이 들어선 타인강변에는 최고급 힐튼호텔이 들어서면서 지난해까지 약 2000만 명의 관광객들이 다녀갔다. 매년 230억 원에 달하는 경제효과를 거두는 등 현재까지 약 6억 파운드(1조원)의 부가가치를 내고 있다.

‘뉴캐슬게이츠헤드이니셔티브’의 대표 앤드류 딕슨(Andrew Dixon)은 “게이츠헤드의 성공은 언뜻 건축물 몇 개가 낳은 기적으로 비출 수 있지만 진정한 재생은 허허벌판에 멋진 건물 몇 개 짓는 것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게이츠헤드는 이들 문화시설이 지어지기 전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재생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장기적 계획에 맞춰 단계를 밟아온 결과”라고 말했다.

/jhpark@kwangju.co.kr

※이 기획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취재했습니다.